

“매미 우는 밤, 풍산초 불 밝혔네”

풍산교육공동체 1박2일 가족캠프

2015년 08월 26일 (수)

글·사진 풍산초등학교 ☒ -

풍산초등학교(교장 서정만)는 개학을 이
를 앞둔 지난 22~23일 학생, 학부모, 교
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1박2일 풍산교육
공동체 가족캠프를 열었다.(사진)

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주체의 공동
협력, 교육 공동체 구축, 가족캠프를 통
한 교육가족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을 목
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총 20여 가족 80
여명이 참여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. 특
히 조손 가정 학생들은 교원 및 친구 가
족과의 결연으로 또 다른 가족구성원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.



캠프 준비부터 운영 및 마무리를 함께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캠프 첫날은 가족별 소개 시간을 갖고 가족
의 개성을 살린 가족티셔츠를 직접 디자인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.
마을별 긴줄넘기, 줄다리기, 이어달리기 등 체육경기를 통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배우는 시간을
갖기도 하였다. 오후에는 가족텐트 설치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잠기자람, 가족에 편지쓰기 등을 하였
다.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간 소홀했던 가족의 존재를 생각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
을 가졌다.

다음날 새벽 6시, 아빠들의 기상 소리와 함께 축구 경기가 시작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보물
찾기 후 상품 추첨 시간을 가지며 이번 가족캠프를 마무리 하였다. 이번 가족캠프에 참여한 학부모와
학생들은 큰 만족감을 보이며 내년 가족캠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된다는 말을 남기기도
하였다.

학부모와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한 서정만 교장은 “안전사고 발생 없이 가족캠프가 마무리 된 것을 다행
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풍산초등학교는 풍산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과정
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